“종단 혼란 종식, 화합의 시대 열자”

법화종, 제14대 종정 암현 대종사 헌첩식

1월 24일 평창 연화사서 봉행
전 종정 도선 스님 연임 고사
새 종정으로 암현 스님 추대돼
‘정견입종’ 등 교시… 정진 당부

평창=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화종은 1월 24일 ‘제14대 종정 벽산당 암현 대종사 헌첩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종단 인장과 헌첩을 종정 암현 스님에게 봉정하는 모습.

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1월 24일 평창 연화사에서 ‘제14대 종정 벽산당 암현 대종사 헌첩식’을 봉행하고 ‘정견(正見)’과 ‘화합(和合)’이라는 종단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헌첩식은 제13대 종정 청암 도선 대종사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도선 스님은 지난 5년간의 종단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종정추대위원회의 만장일치 연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

이에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헌정문을 통해 “법과 원칙으로 종단의 위의를 지켜 주신 전임 종정 예하의 덕화에 깊은 감사를 올린다”며 그 숭고한 뜻을 받들어 종단 중흥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새 종정으로 추대된 벽산 암현 대종사 역시 종단의 안정과 사부대중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장고 끝에 이 무거운 소임을 자비로 이 수락하며 헌첩식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종정 오른 암현 스님은 1975년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래 50여 년간 정진해 온 선지식으로, 1987년 법화종 입종 이후 평창 연화사에서 주석하며 지역 포교와 교구 발전에 헌신해 왔다. 법화종 총무원 교무부장, 사회부장, 기획실장 등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섭렵하며 종무 행정의 기틀을 닦았다.

특히 2022년 종단 최고위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하며 법화종의 어른으로서 사부대중을 지도해 왔다.

암현 스님은 취임 법어에서 “오늘 받는 헌첩이 산처럼 무겁다”며 낮은 자세로 대중 앞에 섰다. 스님은 종단이 나아갈 세 가지 지표로 ‘정견입종(正見立宗, 바른 견해로 종단을 바로 세우고) 화합흥종(和合興宗, 화합으로 종단을 일으켜) 공제군생(共濟群生, 함께 중생을 건네자)’이라는 교시를 내렸다.

암현 스님은 “헌첩을 받는 이 마음은 기쁨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앞서고, 감사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선다”며 “수행의 길은 오래 걸었다고 해서 저절로 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소임의 자리는 높다 해서 저절로 무게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헌첩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더 닦고 더 살피겠고 말로 앞서기보다 한 걸음씩 행으로 보이겠다”고 말했다.

암현 스님은 “종단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교시가 누구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는 한 줄의 점검표가 되길 바란다”며 종도들에게도 서로를 살리는 말과 화합의 정진을 당부했다.

원로의장 보명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그리고 종단의 법맥이 면면히 이어지기를 삼보전에 발원했다.

이어 교구종무원장협의회장(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스님은 “종단의 뿌리인 교구와 숨결인 사찰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하의 뜻을 현장에 곧게 전달하겠다”고 축사했으며, 전대영 연화사 신도회장은 “말보다 수행의 습관을 세워 큰스님의 길에 외롭지 않은 동반자가 되겠다”는 신도들의 세 가지 서원을 올렸다.

헌첩식에 이어서 재무부장 현봉 스님을 종정예경실장으로 위촉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지역 자비나눔활동으로 떡 300kg을 전달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부처님 깨달음의 길 따르겠습니다”

전국 사찰서 성도재일법회 봉행
철야정진으로 수행 의지 다져
다문화 가정 초청·자비나눔도



전국 사찰들은 불기2570년 성도재일을 맞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월정사에서 봉행된 특별 정진법회 모습.

1월 26일 성도재일(음력 12월 8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경축하고 불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월 25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대법륜전에서 특별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월정사 사부대중과 포교사단 강원지역단 포교사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김동하 강원지역 포교사단장은 발원문을 통해 “무상정각의 지혜를 전법 현장에서 꽃피우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대립과 갈등, 불안과 위험이 있는 곳마다 생명평화를 일구는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1월 26일 광주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부처님 성도재일 광주지역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법문에서 “계율이 바로 서야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며 “성도재일을 맞아 먼저 계율을 잘 지키는 삶부터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 소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이웃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어 무등의 평등 정신과 극락의 염원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지역 불교 행사와 자비나눔에 앞장서 온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에 2026년 불자대상을 수여했다. 광주지원은 상금 전액을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에 기부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스님)는 1월 24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불기2569년 성도재일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초청법사인 조계종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법문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부처님 법은 멀리서 보아도 그 자체로 빛나는 행운이다. 불교와의 인연이 큰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회장 도륜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법석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한 걸음씩 깨달음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법회”라며 “법회를 계기로 지역불교를 위한 화합과 발전이 더욱 깊어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모든 가정과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발원한다”고 했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휘정 스님)는 1월 24일 아산 모나밸리 골드홀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성도재일 기념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앞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공연과 마하위하라 사원 불자들의 전통춤 공연 등이 펼쳐졌다.

연합회 원로의장 송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탐·진·치의 불을 끄는 것이 열반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며 “성도재일을 맞아 수행과 실천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1월 25일 오후 8시부터 26일 오전 5시 30분까지 만불보전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화경 전품 수지독송 기도 수행정진’을 봉행했다. 철야정진은 참가 대중들이 〈법화경〉 전 품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독송하며 수행 공덕을 쌓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지 광우 스님은 “한마음으로 독송하며 쌓은 이 공덕이 각자의 소원 성취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동격·양행선·김선행·유재상·성낙두 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4기 교사직무연수

1월 12~14일, 20일 진행…“교사 건강이 학생 건강”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2~14일, 20일에 총 30시간 과정으로 교사 직무연수 ‘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 지친 교사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고정관념 내려놓기와 자기 성찰, 마음을 여는 대화 등을 통해 교사로서의 부담감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마음의 활용과 원리, 삶과 죽음의 성찰, 촛불명상 등을 통해 본래 마음자리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혔다.

이와 함께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일상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중심의 연수가 이뤄졌다.

마지막 날에는 실천 나누기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마음공부를 이어갈 것인지 다짐을 나누며, 이번 연수를 지속적인 마음 수행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 연수 목표 달성도와 직무 수행에 대한 도움, 강의 구성과 교육 환경 전반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 교사들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임을 깨달았다”,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교단에 설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의 건강한 마음이 곧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여름과 겨울에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2024년 여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교사직무연수는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추천으로 ‘교사가 교사에게 권하는 연수’로 자리 잡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남 고흥불교사암연합회 출범

1월 25일 창립 발대식
30개 사찰들 원력 초석



전남 고흥 지역 불교 사찰들이 뜻을 모아 지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고흥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25일 고흥 하나웨딩홀에서 창립 발대식과 출범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고흥 지역 30개 사찰이 동참해 고흥 불교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원력을 함께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왜 스님(금탑사 주지), 정륜 스님(수도암 주지), 우암 스님(봉래사 주지), 진허 스님(능가사 주지)을 비롯해 지역 사암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해 연합회 출범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탑사 주지 정왜 스님이 초대 회장으로, 봉래사 주지 우암 스님이 총무로 각각 추대됐다. 연합회는 종단과 사찰을 넘어 지역 불교가 한데 힘을 모아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사찰 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왜 스님은 취임 인사를 통해 “고흥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회원 사찰 스님들의 뜻에 따라 소임을 맡게 된 만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지역 불교 발전과 고흥의 미래를 위해 작은 역할이나마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흥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 지역 포교 활동을 비롯해 불교 행사 주관, 회원 사찰 간 친목 도모,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 공식 활동으로는 오는 3월 1일 고흥 녹동에서 연합방생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승불교삼보조계종 신년하례

1월 23일 삼보사서



대승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월 23일 삼보사에서 신년하례 및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종회의장 지홍 스님, 종회부의장 법융 스님, 사무총장 평산 스님, 교육원장 덕일 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신년사에서 “종단 통합 이후 새 집행부는 종도들이 화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부인 총무원과 입법부 중앙종회, 사법부 감찰원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종단이 원만히 운영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나주 다보사, 대구에 명상원 개원

1월 23일 점안의식 진행



나주 다보사(주지 만민 스님)는 1월 23일 대구 수성구에 ‘달빛요가명상원(지도법사 만민 스님)’을 개원했다.〈사진〉

이날 개원식은 관세음보살상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명상원 개원을 알리는 법요식으로 봉행됐다.

달빛요가명상원은 만민 스님과 대구에서 오랜 시간 마음공부를 이어오던 신도 3명이 원력을 내어 조성했다.

한편, 명상원에서는 매월 1회 만민 스님의 지도로 불교 강의와 요가,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정 스님, 자비명상 총동문회장 취임

1월 24일 회장 이·취임식



사단법인 자비명상 총동문회(이사장 마가 스님) 제8대 회장에 혜정 스님이 취임했다. 자비명상 총동문회는 1월 24일 화성 보명사에서 7·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혜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자비명상은 한국불교 명상을 대표하는 수행 단체로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자비 속에서 수행의 길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뜻을 이어 동문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성 오도암, 30년 불사 공덕비 제막

지난해 12월 22일 개최



고성 옥천사 적멸보궁 오도암(주지 지성 스님)이 30여 년에 걸친 불사를 회향하고 공덕비를 제막하며 오랜 원력의 결실을 축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회향식에는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이날 제막된 공덕비에는 지난 30년 동안 적멸보궁 불사를 위해 헌신한 사부대중의 원력과 공덕이 새겨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